

e-스포츠 국제대회 유치 앞장

임실군, 예원예술대·중국 하얼빈정보공정대학 e-스포츠 활성화 협력

임실군이 한·중 대학과 손을 맞잡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예원예술대학교와 중국 하얼빈정보공정대학이 임실군청을 방문, 한·중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 및 학교 간 유학생 교류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특히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육정호 부어섬 등 임실군 대표 관광산업과 연계한 e-스포츠 관광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예원예술대학교는 임실에 위치한 희망캠퍼스 시설을 일부 리모델링하여 상시 연습할 수 있는 e-스포츠 전용 공간

을 마련했다.

특히, e-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이 임실군을 찾을 수 있도록 임실N치즈축제 등 임실군 축제 시기에 맞춰 대규모 e-스포츠 국제대회를 유치 또는 개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임실군 희망캠퍼스를 국제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중국 하얼빈정보공정대학 학생처럼 인공지는, e-스포츠 등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대학생이 함께 모여 학습할 수 있는 전문대학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중국 하얼빈정보공정대학은 1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으로, 컴퓨터 및 정보화 등 IT기술을 특화한 전문대학이다.

이 대학은 예원예술대학교에서 추진하는 e-스포츠 국제대회에 큰 관심을 갖고 임실군을 방문했으며, 앞으로 대회 개최 및 학생 교환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예원예술대학교가 중국 하얼빈정보공정대학과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어 더없이 기쁘다"며 "신규 사업인 e-스포츠 사업을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기존 관광자원들과 연계해 임실군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원예술대학교는 임실군 신청면에 2000년 개교하여, 현재 임실군 희망캠퍼스와 경기도 양주에 드림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공연예술학부,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스포츠과학부를 비롯한 디지털콘텐츠학부 등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아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을 포함한 예술 제작 기술 K-하이테크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 양성 교육 및 e-스포츠 양성 전문분야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공약사업 양지천 꽃잔디 조성

순창군, 지역 사회단체 8곳 등 양지천 꽃잔디 직접 관리의사 신청서 제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경천 양지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양지천 꽃잔디 조성에 지역 사회단체가 함께하며 경천·양지천의 기적 만들기 등에 동참한다.

순창군의 대표 공약사업인 경천·양지천 개발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175억원을 투입해 음악 분수대와 산책로 신설, 산책로변 꽃잔디 조성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첫 단계로 양지천 1.4km구간에 꽃잔디 43만본을 식재했다.

지난해 가을 식재했던 꽃잔디가 올봄 화려하게 피어나며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에 군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해 풀을 뽑고 꽃잔디 관리 등에 적극 나서자 지역 사회단체들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1호로 순창애향본부가 꽃

잔디 일부 구역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자진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외에도 7개 단체가 같은 날 신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은 더 많은 사회단체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 꽃잔디 관리구역을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군민들을 본격적으로 모집할 방침이다.

군은 꽃잔디 1.4km구간 전체에 대해 관리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관내 사회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순창군청 건설과 경관조성팀(063-650-1825)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양지천 수변 관리구역 신청의 취지는 순창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천과 양지천 수변개발사업에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아름다운 천변을 가꾸기 위한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5월부터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보장 내용 강화

남원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의 보장 내용을 5월부터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급 확대로 이와 관련된 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가해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남원시는 2023년부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5월부터는 사고당 보상한도를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고당 피보험자 자부담이 없도록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국비 확보 일제 출장 결과보고회 개최

부처별 쟁점사항 점검 등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경식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및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 출장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정 발전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을 목표로,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119건(총사업비 1조3,024억원)을 발굴하였으며, 이번 보고회는 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예산 사업에 대해 부처별 출장결과와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경식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및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 출장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시의 2025년 신규사업에는 △드론문화체험관 건립(총사업비 250억원)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193억원) △운봉읍·노안동 도시재생사업(333억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200억원) △등구·백평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669억원) △지리산 남원에코촌 조성사업(120억원)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233억원) 등이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계획해 실시하고, 주요 사업 사전 설명을 통해 수용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있으며, 최경식 시장 역시 매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하고 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 및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도 중점사업 선정과 부처 단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발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중앙부처에서는 국가 예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이에 남원시는 부처별 공모사업 초기 단계에 적극 대응해 자체 시비 사업을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모색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시정방향과 맞는 공모사업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정부의 긴축·건전재정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지만, 지역 현안 해결과 시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부서에서는 정부 국정과제 및 도 중점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방문 등 전방위적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구내식당 직원 점심 배식 봉사

최경식 남원시장은 제94회 춘향제 준비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최 시장은 이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400여명의 직원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배식 봉사하며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종료 이후에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통에서 최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제94회 춘향제 추진을



최경식 남원시장은 제94회 춘향제 준비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순창군 - 광주광역시 남구, 자매결연 협약 체결

순창군과 광주광역시 남구가 지난달 30일 순창군청 영성회의실에서 양 자치단체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신정일 순창군의회 의장, 김병내 남구청장,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공무원과 주민단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양 도시는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관계로서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문화·교육·체육·관광 등 폭넓은 교류를 약속했다.

특히, 공동 관심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양 도시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과 광주광역시 남구가 지난달 30일 순창군청 영성회의실에서 양 자치단체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